

《三國史記·遺事》記事에 의한 新羅王京 復元과 古韓尺

新井 宏*

<目 次>

- | | |
|----------------------|--------------------|
| I. 머리말 | VI. 滿月城의 問題 |
| II. 從前의 復元案 | VII. 道路 幅의 問題 |
| III. 《史記·遺事》의 새로운 解釋 | VIII. 從前의 復元案에 대하여 |
| IV. 王京 概念圖의 復元 | IX. 맺음말 |
| V. 使用尺度의 問題 | |

국 문 요 약

新羅王京의 條坊 복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안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복원안은 모두 古籍圖의 관찰이나 고고학적인 지견, 또는 문헌적인 지견을 단편적으로 고찰했을 뿐, 계량사적인 관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三國史記》에 ‘長三千七十五步 廣三千一十八步 三十五里 六部’라고 있는 것이 왜 長三千七十五步 廣三千一十八步인지, 步의 실제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또 三十五里·六部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복원안에서도 밝혀진 바가 없다. 그것은 《三國遺事》에 기록된 ‘一千三百六十坊(三百六十坊) 五十五里’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이다. 王京을 복원해도 그 크기를 《三國史記》에 표시된 ‘長三千七十五步 廣三千一十八步’와 대비해서 검토한 예도 없다.

본고에서는 종전의 복원안과는 시각을 달리하며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 기록된 기재사항을 보다 충실하게 해석함으로써 條坊 복원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대한 해석만으로 方 100步를 1坊, 9坊(方300步)을 1里, 100里(方 10里)를 王京으로 하는 복원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복원도는 坊 부분에만 주목하면 尹武柄의 복원안이나 東潮·田中俊明의 복원안과 일치되고 있어 종전의 연구성과를 포괄하는 복원도가 되어 있다.

한편, 古籍圖의 관찰이나 최근의 고고학적 접근에 의하면 條坊 구획의 크기는 약 160m이다. 따라서 《三

* 경상대 재료공학부 초빙교수

翻譯: 山本孝文(釜山大學校 考古學科 博士課程)

《國史記》에 나타난 1步는 1.60m, 한 척은 26.7cm가 된다. 이 척도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많은 유적들로부터 귀납적으로 산출된 古韓尺과 완전히 일치된다.

주요어 : 新羅王京, 三國史記, 三國遺事, 古韓尺, 坊, 里

I. 머리말

新羅王京의 都城制 연구는 일찍이 藤島亥治郎에 의한 條坊 復元(藤島亥治郎 1930)으로 시작되며, 최근에도 尹武炳의 復元案(尹武炳 1987), 東潮·田中俊明의 복원안(東潮·田中俊明 1988), 閔德植의 복원안(閔德植 1990), 金漢培의 復元案(金漢培 1998), 東潮의 수정안(東潮 1999) 등이 잇따라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들 복원안은 모두 古籍圖의 관찰이나 고고학적인 지견, 그리고 문헌적인 지견을 종합해서 고찰하는 관점이 불충분하며, 복원의 기초가 되는 度量衡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三國史記》에 ‘長三千七十五步 廣三千一十八步 三十五里 六部’라고 보이는데 이것은 왜 三千七十五步·三千一十八步인지, 步의 실제 길이는 얼마인지, 또 三十五里·六部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문제들에 대해서는 모든 복원안에서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한 점은 《三國遺事》의 기사인 ‘一千三百六十坊(三百六十坊) 五十五里’에 대한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왕경을 복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三國史記》에 나타난 ‘長三千七十五步 廣三千一十八步’와 대비시켜서 검토된 예도 없다.

물론 왕경 복원문제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都城 범위에 대한 전반적인 발굴조사를 기다려야 될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이긴 하지만 古道에 대한 발굴 사례가 증가하여 일부 條坊의 상황이 밝혀지고 있다. 또 古代計量史 연구에서도 새로운 지견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종전의 복원안 성과를 활용하면서 고고학적인 조사결과나 계량사의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 기록된 사항을 모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왕경 복원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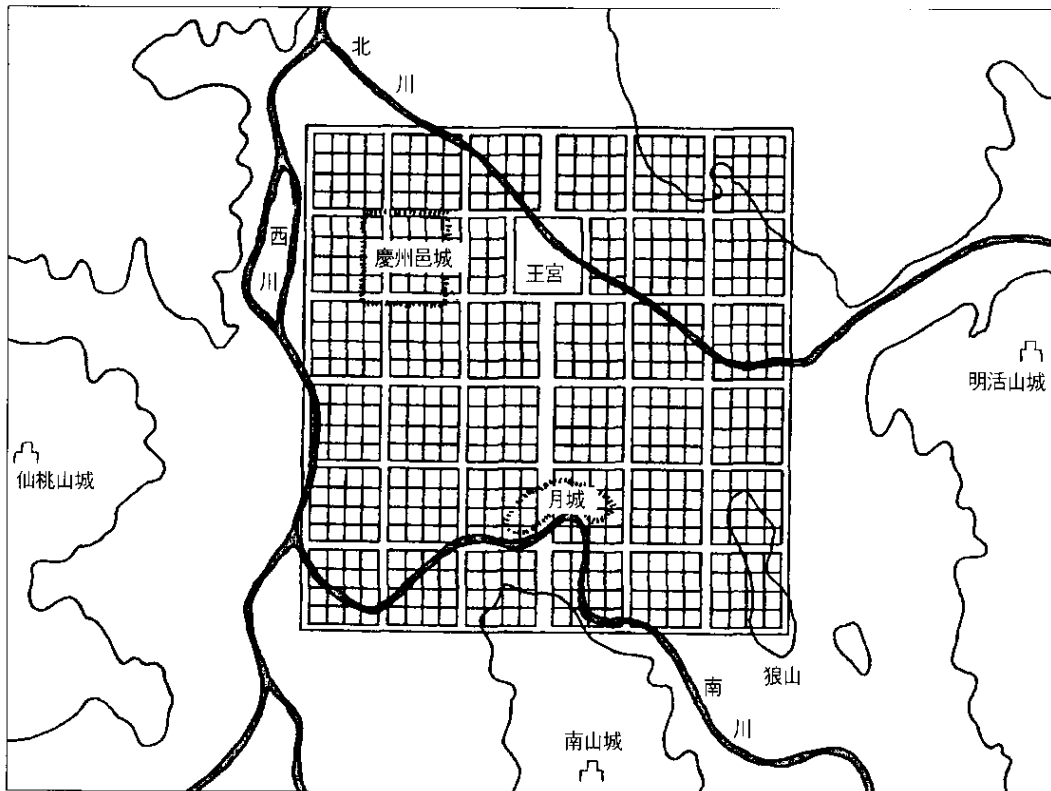
II. 從前의 復元案

藤島亥治郎의 복원안(藤島亥治郎 1930)은 1920년대 말 慶州의 지도와 地籍圖를 기초로 한 것으로 한 면이 東魏尺으로 400尺의 方格에 의해 구성된 坊이 東西로 8里 32구획(14,400東魏尺), 南北으로 8

條 32구획(左京에서는 12,860東魏尺, 右京에서는 13,220東魏尺)이 되는 것으로 복원하였다. 이는 대체로 한 변이 5.1km이다.

이에 비해 尹武炳은 城東洞 殿廡址를 統一新羅時代의 왕궁으로 보고 이것으로부터 月城 북쪽 중앙에 이르는 폭 120m의 南北大路를 상정하며, 이 남북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 및 동서 방향으로 퍼지는 도로망에 의해 36坊으로 구성된 왕경을 복원하였다(尹武炳 1987). 《三國遺事》에 一千三百六十坊 또는 三百六十坊으로 기록되는데도 불구하고 36坊으로 한 것은 唐나라의 長安城이 108坊, 일본의 平城京이 72坊인 것을 감안해서 《三國遺事》의 기재는 과대 수치이며, 오히려 《三國史記》에 三十五里로 기록된 것을 35坊으로 보고, 1坊을 더해서 36坊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근거 중의 하나로서 高麗時代에 坊名 대신에 里名을 사용했던 예를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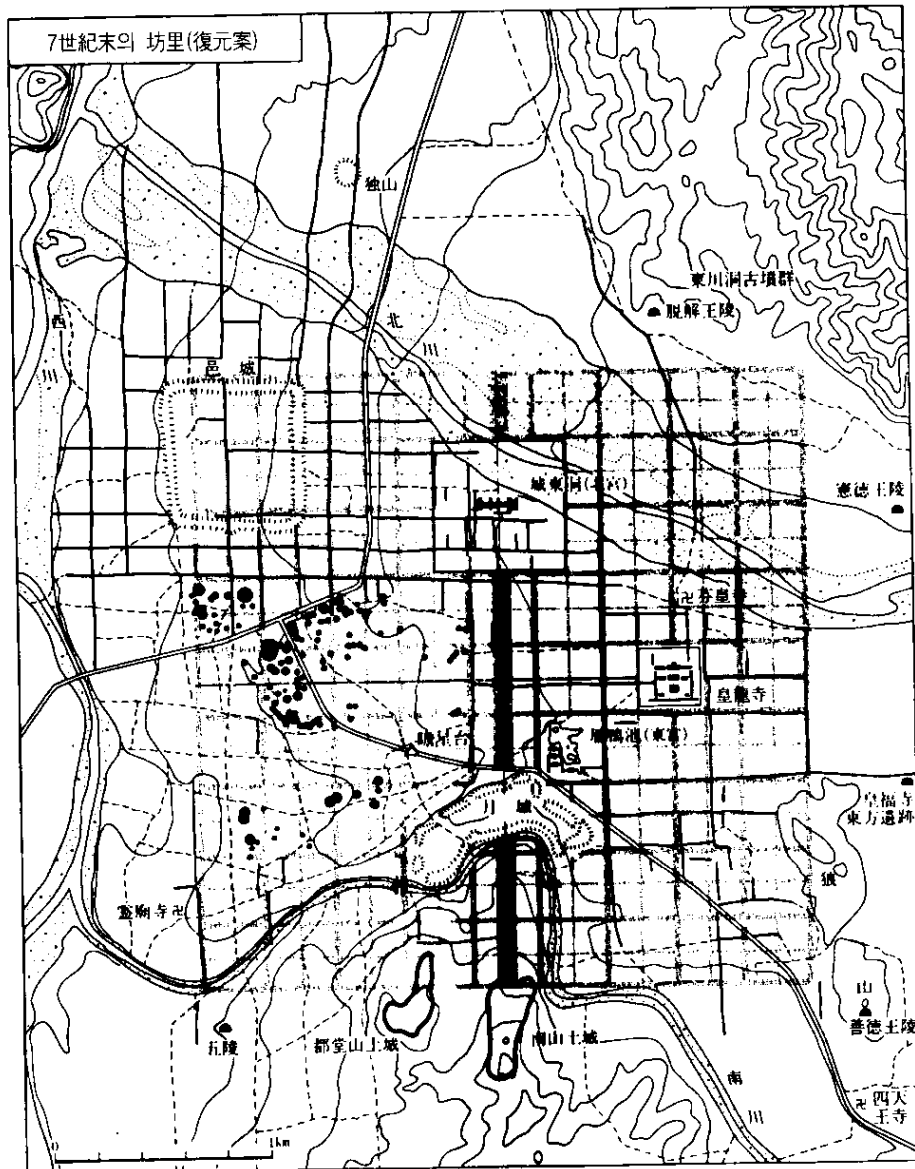
또 尹武炳은 이들 坊은 平城京과 마찬가지로 4×4, 즉 16개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하여 方 160m의 구획을 상정하며, <도면 1>과 같은 복원도를 작성하였다(다만 1구획의 남북 길이는 140m 내지 160m로 하고 있다). 方 160m를 기준으로 하면 동서 및 남북 모두 6×4, 즉 24개가 되며, 3.9km의 王京城을 설정한 셈이다. 그런데 남북대로의 폭을 120m로 하는 학설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찬동하고 있었으나(張順鏞 1976 ; 東潮·田中俊明 1988 외), 그 후 발굴조사에 의해 城東洞 殿廡의 동서 폭이 220m



<도면 1> 尹武炳의 新羅王京 復元圖

이고 그 서쪽에 있는 남북 도로가 300m 이상 남쪽으로 퍼져 있음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朴方龍 1996 ; 金昌鎬 1995 외).

한편으로 東潮와 田中俊明은 윤무병의 복원안을 참고하면서 윤무병 복원안에서는 왕경이 주위의 산지에 걸리는 점이나 月城을 坊에 포함시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그 후에 이루어진 발굴조사 결과를 고려하면서 동서·남북 각 18구획(方 160m)으로 구성된 <도면 2>와 같은 복원안을 제시하



<도면 2> 東潮·田中俊明의 新羅王京 復元圖

였다(東潮·田中俊明 1988). 이 결과에 따르면 王京域은 동서, 남북이 2.9km 정도가 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과는 달리 閔德植은 藤島亥治郎의 연구를 계승하는 형태로 동서, 남북이 5.6km가 되는 복원안을 제시하였다(閔德植 1990). 즉 閔德植은 坊의 남북을 東魏尺으로 400尺(140m), 동서를 東魏尺으로 470尺(164.5m)으로 한 다음에 남북을 40坊(16,000東魏尺 : 5,600m), 동서를 34坊(15,980東魏尺 : 5,593m)으로 하며, 《三國遺事》에 보이는 1,360坊과 일치되는 견해를 나타냄과 더불어, 왕경 주위의 길이가 東魏尺으로 35.533리로 산출된 것으로부터 《三國史記》에 보이는 三十五里는 이 周長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어서 金漢培는 왕경역의 규모에 대해서는 윤무병의 복원안을 계승하면서 都市景觀史의 입장에서 왕경 중심을 月城 北門 부근으로 하며, 윤무병의 견해보다 4구획, 즉 640m 정도 남쪽으로 이동시킨 복원도를 제시하였다(金漢培 1998).

또 東潮는 최근 발굴조사의 진전을 자세히 검토해서 東潮·田中俊明案(1988)을 수정하여 동서 10里(20구획), 남북 9里(18구획)로 하는 복원안을 제시하였다(東潮 1999). 종전의 견해를 동서로 각 1구획씩 확장한 것으로 이 경우 구획의 크기는 정밀한 검토 결과 160.2m로 하였다.

이상과 같이 각 복원안은 각각의 입장에서 문헌의 기재 사항 또는 사용 척도와 地籍圖의 고고학적인 조사결과의 정합성 유지에 집중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제시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복원안을 제시한 다음에 그것과 비교하면서 밝히고자 한다.

Ⅲ. 《史記·遺事》의 새로운 解釋

新羅王京을 복원하는데 있어서는 고고학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선 기초적인 문헌인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기재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전의 복원안에서는 모두 이들 기록을 무시하거나 또는 인용하는 경우도 일부에 불과하며, 전체를 통해서 정합성 있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모자랐다.

본고에서는 왕경을 복원하는데 있어 종전의 일반적인 접근법, 즉 유적이나 地籍圖로부터의 복원 연구의 입장을 일단 벗어나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기재 사항으로부터 왕경 복원을 시도하면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먼저 검토한 다음, 그 결과를 유적이나 지형도와 대비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먼저 기초자료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三國史記] 雜志三 地理一 王都條

王都 長三千七十五步 廣三千一十八步 三十五里 六部

[三國遺事] 卷第一 辰韓條

京中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一千三百六十坊 五十五里

[三國遺事] 卷第五 念佛師條

三百六十坊 十七萬戶

이미 지적된 바 있으나, 《三國遺事》 卷第一에 있는 一千三百六十坊과 卷第五에 보이는 三百六十坊은 동일 필자에 의한 기재이므로 어느 한 쪽을 잘못 기록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三國史記》의 三十五里와 《三國遺事》의 五十五里에 대해서는 필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잘못 기록하였다고 보는 단순한 추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문헌에서는 동일한 왕경을 기록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개념도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三國遺事》 卷第一에는 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卷第五에는 十七萬戶로 되어 있는 점이다. 개략적인 수치를 기록한 것이라면 十八萬戶이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 王京의 區劃

우선 왕경의 「長三千七十五步」와 「廣三千一十八步」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한다.

이들 수치가 네 자리의 有効數字를 가지는 것으로부터 정밀한 실측결과로 이해하기 쉬운데, 실체는 오히려 반대이다. 평지에 축조된 완성도가 높은 왕경의 경우도 실측치를 얻기는 어려우므로, 영역 안에 구릉이나 하천을 포함하는 신라 왕경의 경우는 실측치가 아니라 계획상의 개념도를 기초로 해서 산출된 수치였을 가능성이 극히 높을 것이다. 그것은 長, 廣 모두 三千步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 α 수치를 덧붙인 형태라는 점에서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개념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들 수치가 산출되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으면 연구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자세한 논의가 없어도 이들 개념도가 왕경 크기를 약 3,000步, 즉 方 10里로서 이해했음은 분명하다. 일본의 藤原京도 최근의 연구에서 方 10里였음이 지적되었으며(小澤毅 1997), 공통성을 볼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왜 七十五步나 十八步라는 端數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外周 부분에 어떤 특이성이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으나, 신라 왕경에는 羅郭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方格에 속하지 않은 도로 폭을 산출한 결과로 보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도로 폭이면 왕경 복원과 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한 뜻으로 七十五步는 6尺 1步에서 450尺으로 50尺×9로 되어 있다. 또 十八步도 2步×9로 모

두 9의 倍數가 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령 왕경이 1里, 즉 300步 방격으로 10구 분되어 있었다면, 그 사이를 구분하는 도로로서는 9路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里마다 방격을 형성하고 있었던 왕경의 예로서는 중국 漢나라의 長安城을 비롯하여 일본의 藤原京이나 平城京 등이 있어 오히려 일반적이다. 그리고 《三國史記》의 기술 자체가 方 10里인 점이나 芬皇寺 十里路의 명칭이 남아 있었음을 종합해서 생각하면 신라 왕경도 方 1里를 큰 방격으로 하는 10×10구획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는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

남는 문제는 이 큰 방격이 다시 몇 개의 작은 방격으로 분할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이다. 중국의 경우는 1里 방격을 100步로 3분할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일본의 藤原京이나 平城京의 경우는 75步로 4분할되었던 예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3분할과 4분할의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2. 里와 坊의 크기

《三國遺事》에는 一千三百六十坊 또는 三百六十坊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이것이 왕경 내부의 방격 구조와 관련이 있었음은 틀림없다. 이 記述이 상기의 이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 수 있으면 연구는 크게 진전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一千三百六十坊과 三百六十坊의 어느 쪽인가가 譌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논의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坊’을 논의하기 전에 ‘里’에 대해 고찰해 두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里는 길이를 표현하는 단위로 이해되고 있는 듯하지만, 里는 면적 단위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步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임과 더불어 方 1步의 면적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원래 ‘里’라는 한자는 구획정리된 토지를 의미한 것이므로 里가 면적의 단위였음은 당연한데, 그것을 실증하는 문헌으로서 다음과 같은 중국 고전의 예가 있다.

[韓氏外傳] 廣三百步 長三百步 爲里

[大戴禮主言編] 百步而堵 三百步而里 千步而井 三井而甸烈 三甸烈而距 五十里而對

[穀梁傳 宣公十五年條] 古者三百步爲里 名曰井田 井田者九百畝

《韓氏外傳》이 方 300步를 면적 1里로 하고 있는 것이 직접적인 증거인데, 《大戴禮主言編》에서도 면적의 단위인 井, 甸烈, 距, 對 등과 함께 里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로부터 里가 면적 단위였음을 알 수 있다. 《穀梁傳》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길이를 가지고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고대 計量法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일본에서도 町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임과 동시에 면적 단위이기도 하였다. 즉 1町의 길이는 60步이지만, 1町의 면적은 方 60步, 즉 3600步였다.

따라서 신라 왕경의 總面積을 里 단위로 나타내면 100里이다. 그렇게 보면 《三國史記》에 보이는 三十五里나 《三國遺事》에 있는 五十五里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원대 《三國史記》의 기사는 왕경 크기를 약 3000步로 나타낸 뒤에 三十五里가 나와 있으므로 里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가 아님은 확실하며, 이것이 길이라면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里는 坊과는 다른 지역의 면적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坊의 크기에 대한 검토를 하자. 우선 《三國遺事》의 기사에 주목한다.

《三國遺事》에서는 五十五里로 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45里 중에 坊이 형성되고 있던 셈이다. 方 1 里 가운데 몇 개의 小方格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3分割案(3×3) 및 4分割案(4×4)의 두 가지가 있다. 따라서 45里의 면적은 3분할로는 405坊, 4분할로는 720坊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1360坊에는 도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三國遺事》念佛師條에 보이는 360坊이 타당하며, 辰韓條의 1360坊은 360坊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360坊을 전제로 한 경우, 3분할안과 4분할안은 어느 쪽이 보다 타당성이 있을까? 坊 부분과 里 부분의 합계가 왕경의 총면적인 100里에 가까운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면, 당연히 결론은 3분할안이 된다. 이 견해에서는 360坊은 40里에 상당하는 것으로 里 부분과 합하면 95里가 되어 5里만 남는다. 이 5里를 王宮地로 보는 것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 왜냐하면 《舊唐書》新羅傳에 ‘王之所居曰金城 周七八里’ 또는 《新唐書》新羅傳에 ‘王居金城 環八里’ 로 보이며, 二里四方, 즉 면적이 四里 정도로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三國史記》의 경우도 里 부분이 35里이며, 나머지 65里의 부분에 坊이나 왕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여기서는 六部가 坊 부분에 대응하며 六部로 60里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나머지 부분 5里를 왕궁 부분에 해당시키게 되며 《三國遺事》의 기사와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일치된다. 六部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는 기능이나 소재지의 범위 등을 둘러싼 많은 논의(木村誠1984 ; 武田幸男 1991 ; 田中俊明 1992)가 있으나, 여기서는 六部가 왕경 10里 사방 안에 들어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상과 같이 신라 왕궁이 方 10里로 東西南北을 1里씩 大方格으로 구분하고, 또 그 大方格을 100步씩으로 세 분할하였다는 복원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시론이 종전에 이루어진 지도상의 복원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점, 그리고 原典을 개변할 필요 없이 이루어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3. 《三國遺事》의 誤記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왕경 복원과 관련된 기사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지만, 《三國遺事》에는 또 하나 주목되는 기재가 있다. 그것은 《三國遺事》 卷第一 辰韓條에 있는 ‘京中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라는 기재이다. 이 기사의 직후에는 一千三百六十坊이라는 오기

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도 오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의 하나는 ‘京中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라는 수치가 卷第五 念佛師條의 十七萬戶와 맞지 않다는 점이다. 대략의 숫자로 나타낸 것이라면 十八萬戶이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기사가 戶數를 말하고 있으며, 坊數나 里數를 말하면서, 보다 중요한 왕경 크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로 坊, 里의 기사에 이어져 있는 점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誤記의 가능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誤) 京中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一千三百六十坊 五十五里

(正) 京中十七萬戶 一萬八千九百三十六尺 三百六十坊 五十五里

萬과 萬 사이의 ‘戶一’ 이 轉記할 때 빠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므로 尺을 戶로 고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戶一’ 이 ‘千’ 으로 바뀐 것이 아닐까 한다.

물론 이러한 추론에는 의미가 있다. 一萬八千九百三十六尺은 步 단위로 환산하면 3156步로 《三國史記》의 3075步 등에 가깝기 때문이다. 물론 이 숫자도 실측치로 생각하기는 어려우며, 개념도를 기초해서 산출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端數인 156步가 가지는 의미가 문제가 된다.

《三國史記》의 개념도에서는 동서 방향 1里(300步)마다 50尺의 도로(大路)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외에 각 坊에도 中路나 小路가 있었을 텐데, 보통 中路나 小路의 폭은 坊 면적에 포함되어 독립적으로 왕경 길이에 가산되는 경우는 적다. 적어도 《三國史記》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런데 《三國遺事》에서는 이러한 中路도 별개로 보고 있는 듯하다. 즉 9개의 大路 외에 각 坊 사이에 中路가 모두 20개 있던 것으로 보고 이에 왕경 양끝의 도로(합해서 하나의 中路가 됨)를 더해 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것처럼 보인다.

$$\text{大路}(8\text{步}) \times 9 + \text{中路}(4\text{步}) \times 21 = 156\text{步}$$

大路의 8步(48尺)는 《三國史記》에 보이는 50尺에 극히 가까우며, 中路 폭을 大路의 반절로 보는 것도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본 藤原京의 大路는 朱雀大路를 제외하면 六條大路가 10步(60唐尺), 八條大路가 9步(54唐尺), 三條大路가 5步(30唐尺)였다.

이상과 같은 추론이 타당하다면,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의 기재는 반드시 실상을 충실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상의 이해를 그대로 문장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고대 문서에 나타나는 수치에는 때로 이러한 독특한 논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그것을 해독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IV. 王京 概念圖의 復元

왕경의 크기를 전하는 거리 표시가 실측치가 아닌 개념상의 계산치였다면, 35리라든지 55리, 또는 360坊이라는 수치도 반드시 실질적인 값이 아니라 개념상의 값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三國史記》나 《三國遺事》가 전하는 왕경에 대한 세 수치는 반드시 실제 지도상의 里나 坊을 계산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개념상의 지도를 기초로 해서 계산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들 왕경의 세 수치가 개념상의 모델에서 계산된 것이라면, 우리가 그 계산 논리를 재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들 수치를 왕경 圖上에 간단한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가령 결과적으로 극히 간략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다면, 그 당시의 모델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참고가 되는 것이 《梁書》新羅傳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梁書 新羅傳] 其俗號城曰健牟羅 其邑在內曰啄評 在外曰邑勒 亦中國之郡縣也 國有之六啄評 五十二邑勒

田中俊明(1992)에 따르면 健牟羅는 金城(왕궁)으로, 六啄評은 六部로 보는 것이 최근의 통설이라고 한다. 즉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六部 밖에 邑勒이 있다는 개념도가 여기서 제시되고 있다. 이것에 의하면 왕경에서의 里 부분은 六部の 外周部에 있었으므로 외주부로부터 里를 배치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모두에 공통되는 간단한 복원도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상의 검토 결과를 정리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 (1) 왕궁은 3000步의 정방형, 즉 10리의 정방형으로 면적은 100리이다.
- (2) 그 가운데 《三國史記》에서는 거주지(坊)로서 60리, 왕궁용으로서 5리, 기타로서 35리로 생각했으나, 《三國遺事》에서는 거주지(坊)로서 40리(360坊), 왕궁용으로서 5리, 기타로서 55리로 보고 있다. 왕경의 면적을 5리로 하는 점은 둘 다 공통되고 있다.
- (3) 왕경은 300步, 즉 1리 간격으로 大路를 가지고 있으며 100步 간격으로 中路를 가지고 있었다. 里로 나타내면 100개, 坊으로 나타내면 900개이다. 따라서 坊 크기는 100步 사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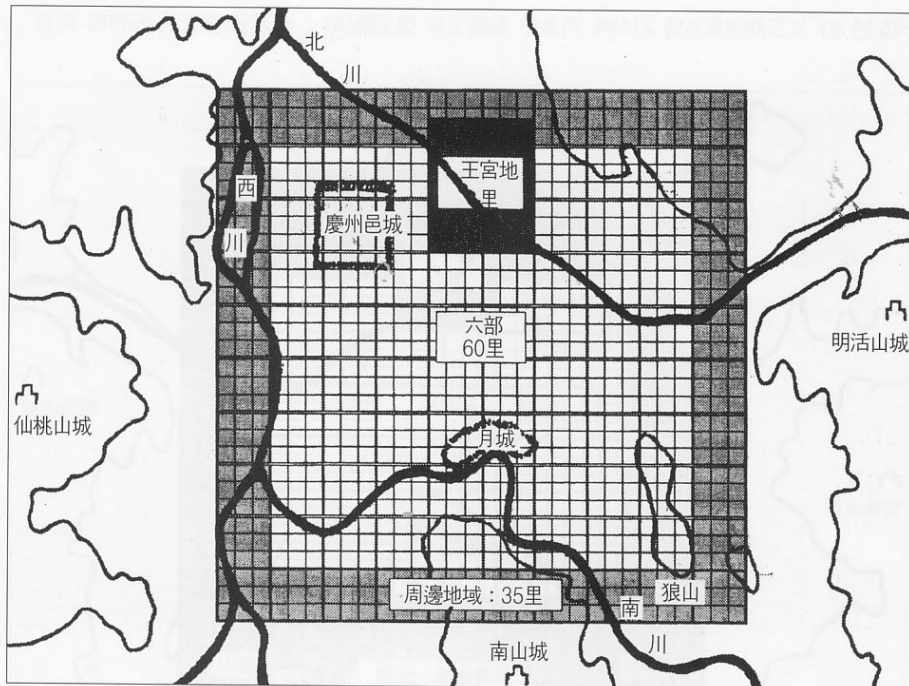
이들 개념을 기초로 해서 왕궁을 북쪽 중앙에, 坊(또는 六部)을 왕경 중심지에, 里를 주변부에 배치하는 형태로 개념도를 작성해 보았다. 시행착오의 결과 얻어진 가장 간략한 모양을 <도면 3>, <도

면 4>, <도면 5>로 나타난다. <도면 3>은 《三國史記》, <도면 4>와 <도면 5>는 《三國遺事》와 대응하고 있다. 모두 현재 지형상에 복원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이해하기 쉽도록 한 것으로, 종래의 복원도를 참고해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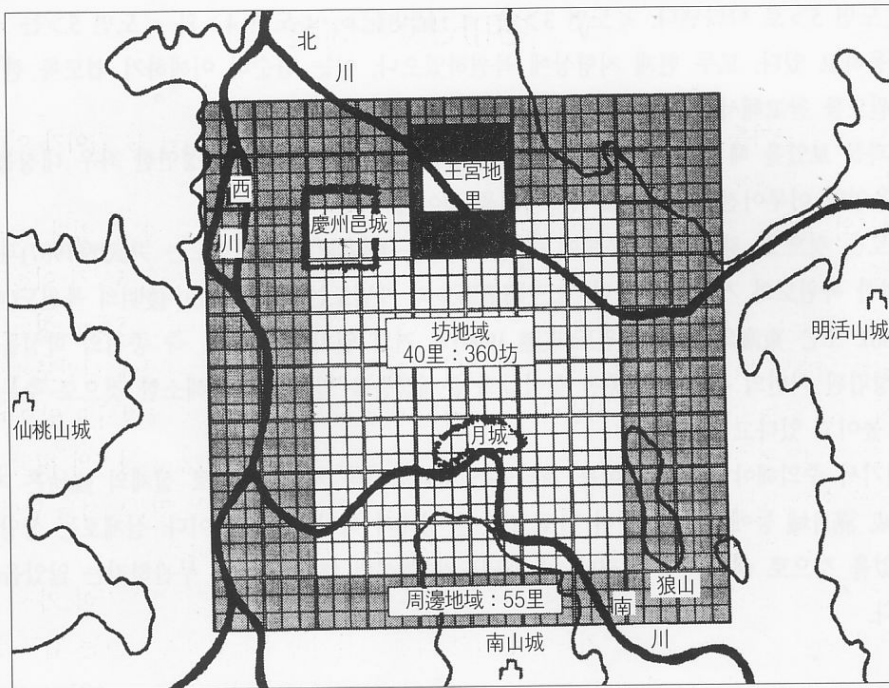
이들 결과를 보았을 때 《三國史記》및 《三國遺事》의 모든 경우에서 정연한 좌우 대칭을 이루며 단순하게 우연히 이루어진 결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흥미로운 것으로, 왕경의 坊 부분에 주목하면, 《三國史記》의 개념도는 尹武炳(1987)과 金漢培(1998)에 의한 복원도와 거의 일치되며, 《三國遺事》의 개념도는 東潮와 田中俊明의 복원도(東潮·田中俊明 1988), 또는 東潮의 수정 복원도(東潮 1999)와 거의 일치되고 있다. 즉 종전의 학설들을 크게 포함해서 성립된 이번의 복원도는 종전 학설들의 문제점들을 발전적으로 해소한 것으로 추론의 신뢰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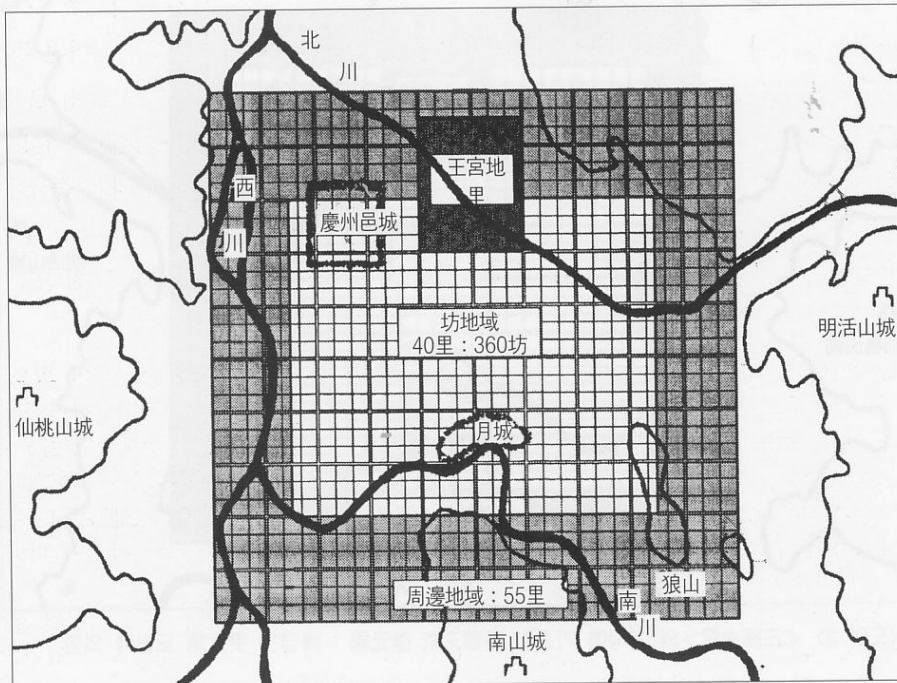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들 개념도는 어디까지나 개념도이므로 실제의 條坊은 지형이나 기존의 月城, 滿月城 등에 제약을 받아 결코 단순한 형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凹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개념도가 현실의 條坊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았음을 틀림 없을 것이다.



<도면 3> 《三國史記》의 기사에 기초한 新羅王京 復元圖 : 배경은 尹武炳 도면에 의함



<도면 4> 《三國遺事》의 기사에 기초한 新羅王京 復元圖(A) : 배경은 尹武炳 도면에 의함



<도면 5> 《三國遺事》의 기사에 기초한 新羅王京 復元圖(B) : 배경은 尹武炳 도면에 의함

V. 使用尺度의 問題

다음으로 왕경 크기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三國史記》에 나타난 步 길이가 어떠한 것이었는가라는 尺度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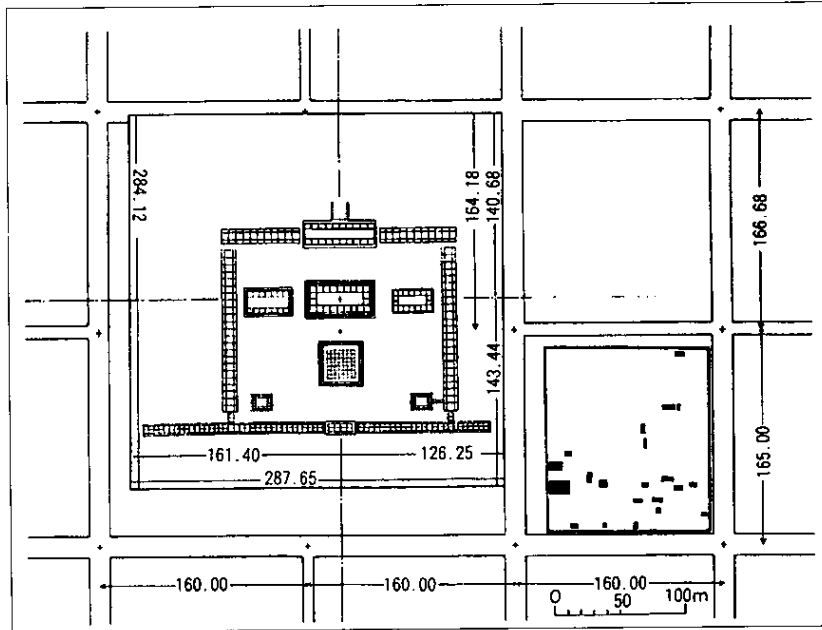
중국 척도의 역사는 기원전 5세기경의 자가 많이 출토되고 있어 상세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나 일본의 경우, 7세기 이후 29.8cm 정도의 唐尺이 사용되었음이 분명하지만, 6세기 이전의 척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일본에서는 大化 前代에 高麗尺이라고 불리는 35.6cm 정도의 척도가 사용되었다는 학설이 일찍부터 있어 이것이 중국의 東魏尺 길이와 가깝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高句麗尺으로서 여러 검토 대상이 되어 왔으나, 그 근거는 대부분이 최근에 들어 부정되고 있으며, 실존한 것인지 극히 의심스럽다. 그 외에도 한반도에서는 周尺이라고 불리는 20.8cm 정도의 復古尺 사용이 삼국시대까지 올라간다고 보기도 하나, 이것 역시 실증된 것은 아니다. 이는 일본에서도 한반도에서도 아직 이 시대 '자'의 출토나 기록이 없어 유력한 증거가 결여하기 때문이다.

차선택은 수많은 유적이나 유물들을 알아보고 어떠한 척도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즉 자의 출토나 기록이 없다면 직접 유물이나 유적들에 물어보는 접근법이다. 그 결과 얻어진 것이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26.7cm 전후의 古韓尺이다(新井宏 1990~1992a : 1992b).

즉 이 고한척은 4~8세기의 한반도 및 일본의 고분, 궁전, 사찰 등 약 70종류 1000건의 막대한 계측 데이터를 대상으로 컴퓨터에 의한 定量的 분석을 시행하며, 그 중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잘 맞는 척도'를 골라 시대나 지역 범위 안에서 정리한 다음, 종합적인 평가를 한 결과 얻어진 것이다. 일본 奈良에 현존하는 法隆寺나 法起寺, 또는 발굴조사에 의해 자세한 자료가 얻어진 慶州 皇龍寺의 건물에도 극히 잘 적용된다. 또 중국에서는 《隋書律歷志》에 기재된 蔡邕銅籥尺(後漢)과 後周玉尺(北周)의 길이를 26.75cm로 고증하고 있으므로 같은 시대에 고한척과 동일한 길이의 자가 중국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丘光明·邱隆·楊平 2001).

그러나 고한척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고려척, 주척 또는 중국에서

- 1) 東魏尺은 『隋書律歷志』에 보이는 東魏後尺으로 同書에 晉前尺의 1.5008배로 되어 있으므로 35cm 정도의 척도로 생각되고 있었으나, 이는 『宋史律歷志』에 있는 1.3008배가 다당하며 30cm 정도의 척도로 보는 것이 중국 계량사학계의 정설이다. 따라서 중국 度量衡史의 집대성인 丘光明의 『中國歷代度量衡考』(1992)에서도 이를 단순히 30.2cm로 소개했을 뿐이다. 高麗尺은 이 東魏尺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 중의 하나가 없어진 셈이다. 또 高麗尺의 증거로 法隆寺, 四天王寺, 皇龍寺, 定林寺의 건축유구가 거론되어 왔으나, 그 후 발굴조사에 의해 계측치가 바뀌어 버렸으며 이들 역시 의미가 없어졌다.
- 2) 皇龍寺址에서 척도 문제에 대한 논의에 적합한 양호한 柱間 계측치(평균치)가 얻어진 부분은 礎石을 수반한 塔(7칸×7칸 : 등간격), 金堂(11칸×6칸), 講堂(9칸×4칸) 및 東廻廊(도리 31칸)이다. 이들 계측치를 古韓尺, 唐尺, 高麗尺으로 평가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한척에서는 完尺數를 얻을 수 있으나, 당척과 고려척에서는 얻을 수 없다.



<도면 6> 皇龍寺址 주변의 區劃과 道路跡(東潮 작성도면)

는 부정되고 있는 동위적에 근거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三國史記》나 《三國遺事》를 기반으로 한 왕경 개념도가 완성된 것은 문헌 상에서 척도를 평가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 즉 坊의 크기는 100步이기 때문에 坊 크기만 알 수 있으면, 그 步長이나 尺長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들의 구획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될까? 그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데, 尹武炳(1987), 東潮·田中俊明(1988), 金漢培(1998) 등은 실제 길이를 약 160m 정도로 보고 있다. 가장 새로운 東潮에 의한 분석 결과(東潮 1999)도 1坊 길이를 160.2m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설로 해도 될 것이다. 이는 최근 도로유적에 대한 발굴이 진전되면서 皇龍寺 근처의 4구획(여기서 말하는 4坊) 주변의 상황이 <도면 6>과 같이 대부분 명확해진 것에 기인한다(東潮 1999).

다만 <도면 6>을 보면 皇龍寺 주변의 조사 결과에서는 동서 방향이 160m인데 비해 남북 방향은

建築部位	測定值(m)	古韓尺(cm)		唐尺(cm)		高麗尺(cm)	
		尺數	尺長	尺數	尺長	尺數	尺長
塔 柱間	3.167	12.0	26.4	10.7	29.5	9.0	35.2
金堂 身舍	5.003	19.0	26.3	17.0	29.4	14.2	35.2
金堂 庇出	3.425	13.0	26.4	11.6	29.5	9.7	35.3
講堂 도리	5.462	20.5	26.6	18.5	29.5	15.5	35.2
講堂 들보	3.970	15.0	26.5	13.5	29.4	11.2	35.5
東廻廊 도리	4.130	15.5	26.6	14.0	29.5	11.6	35.6

그보다 5~6m 길어져 정확히 160m 방격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는 《三國史記》에 있는 것처럼 坊과는 따로 남북 방향에서는 폭 50尺의 동서 도로가 300步마다 하나씩 있어 이것이 가산된 것으로 생각하면 해결된다. 따라서 《三國史記》의 개념이 의외로 실상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론이 타당함을 높이고 있다.

그 외에도 한 方格을 160m로 하는 방증이 있다. 신라시대 지방도시의 地籍圖研究를 통해서 南原小京이나 尙州邑城(沙伐州) 등에 160m 방격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보고(朴泰祐 1987)가 있어 160m 방격의 토지 구획이 신라 왕경 뿐만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1坊 100步가 160m였음을 감안해서 계산하면 1척은 26.7cm가 된다. 이는 고한척 길이와 완전히 일치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발굴된 도로유적에 폭 13.4m와 13.5m의 것이 있으며(朴方龍 1996), 이들 역시 고한척으로 50척이 되므로 문헌에 대한 분석으로 얻어진 50척 또는 8步와 잘 부합되고 있다.

이로써 신라 왕경의 복원 결과는 고한척의 존재를 문헌상 뒷받침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왕경 복원안이 타당함을 증명하기도 한 것이다.

VI. 滿月城의 問題

문헌상의 복원 결과를 고한척을 매개로 해서 실제 지도상에 전개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게 된 것이 있다. 그것은 滿月城에 대한 문제이다.

만월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것을 독립된 것이 아니라 月城을 중심으로 해서 東宮, 瞻星臺를 포함한 왕궁 구역으로 보는 등 여러 논의가 있으나, 아직까지 결론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만월성은 半月城에 대한 對句로 월성을 반월형으로 한다면 연형 또는 방형의 만월성이 따로 존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만월성에 대해서는 《三國史記》 雜誌三 地理一 王都條, ‘長三千七十五步...’ 다음에 ‘新月城北滿月城 周一千八百三十八步’ 라고 보인다. 長三千七十五步 등이 실측치가 아니라 개념도로부터 산출된 것이라면 만월성의 경우 역시 어떠한 기준에 의해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838步가 약 6里이고 이를 방형으로 보면 한 변이 1.5里, 즉 4.5×4.5坊이 되며, 경주읍성의 크기와 일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端數인 三十八步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長三千七十五步 廣三千一十八步’ 로 나타난 논리와 같은 계산이어야 할 것이다. 즉 이 4.5×4.5坊에 퍼지는 도로를 생각한다면, 동서 방향으로 大路(50尺)가 한 개 또는 두 개, 남북 방향으로 小路(2步)가 한 개 또는 두 개가 된다. 이를 동서 방향으로 50尺 도로 두 개(한 쪽 100尺으로 하면 17步, 모두 34步)와 남북 방향으로 2步 도로 하나(모두 4步)로 해서, 계산하면 38步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三十八步라는 단수까지 계산해서 복원할 수 있었으므로 경주읍성에 만월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경주읍성 외주 길이에 대한 보고 값은 없으나, 해자 중심을 재면 2,508m가 된다고 한다(金泰中 1992). 따라서 외주 길이는 2,600m 정도였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1,838步와 비교하면 약간 부족하다. 역시 4.5坊 구획을 상정한 계산에서의 수치였을 것이다.

Ⅶ. 道路 幅의 問題

《三國史記》에 따르면 동서 방향으로 1里마다 50尺(13.4m)의 大路, 남북 방향으로 2步(3.2m)의 小路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반드시 도로의 실제 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도로에는 坊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三國史記》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1里마다의 도로만이 표시되었을 뿐, 坊間의 도로는 명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물론 坊 사이에도 도로가 존재했음은 분명하므로 이들은 坊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三國遺事》의 해석 결과는 약간 다르며, 각 坊의 도로도 따로 의식되고 있었던 듯하다. 조합해서 생각하면 大路로서 50척(13.4m) 또는 8척(12.9m) 정도, 中路로서 25척 또는 4步(6.5~6.7m) 정도, 小路로서 12.5척 또는 2步(3.2m) 정도 폭을 가지는 도로가 존재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개념상의 문제로서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이보다 폭을 넓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도로유구와 대비시켜 보자. 다행히도 朴方龍이 도로유구 일람표를 작성한 바 있다(朴方龍 1996). 이 가운데 도로 폭에 대한 논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골라서 작성한 것이 <表 1>이다.

<表 1> 新羅王京內의 道路遺構

番號	道路遺構 名稱	路面幅	側 溝	備 考
1	皇龍寺址 南外廊 東西道路(下層)	13.5m	石築	위에 15.5m 도로
2	皇龍寺址 東外廊 南北道路	5.5m	未確認	300m 확인, 최대폭 5.5m
3	皇龍寺址 東外廊 東西道路(下層)	5.5m	未確認	
4	皇龍寺址 南外廊 南北道路	13m이상	未確認	
5	皇龍寺址 西外廊 南北道路	7m이상	石築	
6	芬皇寺 南寺 東西道路	9m	未確認	50m 확인, 634年 이전
7	城東洞殿廊址 西寺 南北道路	13.4m	未確認	300m 확인
8	月城石橋 南寺 南北道路	9m	石築	35m 확인
9	隍城洞製鐵遺蹟 東寺 南北道路	6.5m	未確認	15m 확인

이들을 보면 폭 13.4~13.5m의 도로가 두 군데, 5.5m의 도로가 두 군데에서 확인되었으며, 어느 정도 규격이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고한척의 50척과 20척에 해당된다. 또 6.5m 도로는 고한척의 4步에 해당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9m 도로는 어떻게 봐야 될지 불명확하지만, 여기서도 《三國史記》, 《三國遺事》의 개념상의 도로가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VIII. 從前의 復元案에 대하여

이번의 신라 왕경 복원 결과를 기초로 해서 종전 주요 학설의 학사적 위치를 간단하게 정해 두고자 한다.

1. 藤島亥治郎(1930) 復元案

藤島亥治郎의 복원안에는 1930년의 것과 그 후의 수정안이 있다. 모두 地籍圖 등에 기초해서 지도상에 토지 구획 추정도를 설정한 것으로 왕경 복원을 직접 시도한 것은 아니다. 또 1930년 당시로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東魏尺을 기반으로 해서 복원을 시도한 것으로 그 후의 논의를 혼란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되었다.

동위척이란 《隋書》 律歷志에 기록된 東魏後尺으로, 晋前尺(23.3cm)의 1.5008倍임을 전제로 계산한 것(34.7cm 정도)이지만, 현재 중국의 계량사학계에서는 이를 완전한 잘못으로 보고 있으며, 《宋史》 律歷志에 있는 1.3008倍, 즉 30.2cm를 올바른 것으로 보고 있다³⁾. 따라서 잘못된 길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尺度論으로서 큰 의미가 없으며, 지도상의 복원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 나오는 왕경 크기(약 3000步)와의 대응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학사적인 역할을 마쳤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2. 尹武炳(1987) 復元案

尹武炳의 복원도는 왕경의 남북 중심선을 월성과 城東洞 殿廊址를 연결하는 선상에서 찾은 점에 큰 의미가 있으나, 《三國史記》의 三十五里를 三十五坊의 뜻으로 해석하고 《三國遺事》에 있는 360坊 또는 1360坊이라는 기재를 무시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 尺度論의으로도 藤島亥治郎의 동위척을 계승하여 동위척으로 남북을 400척(140m) 또는 460척(160m), 동서를 460척(160m)으로 복원한 점이 약점이다. 따라서 동위척에 기반을 둔 논의가 때문에 《三國史記》의 長三千七十五步 등

3) 註1) 參照.

기재와는 관계없이 왕경 크기를 찾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160m 方格으로 보면 동서 24개, 남북 24개라는 복원이 되고 있어 《三國史記》의 기록을 기초로 해서 복원한 <도면 3>의 坊 부분과 같은 크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문헌에서 찾은 신라 왕경 복원도를 실제 지도상에 적합시킬 때에는 참고해야 되는 복원도라 할 수 있다. 다만, 殿廊址 서쪽에서 폭 13.4m의 남북도로가 300m에 걸쳐 발견되었으므로, 중심선을 따라 120m의 朱雀大路가 있었다고 보는 가설은 부정된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기록에도 朱雀大路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것 역시 부정 이유가 된다.

3. 東潮·田中俊明(1988) 復元案

東潮·田中俊明의 복원안에서는 원래 尹武炳 복원도의 문제점을 수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왕경 크기나 坊을 《三國史記》나 《三國遺事》기사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입장이 희박하다. 오히려 왕경이란 무엇인가를 찾는 가운데, 실제로 坊을 형성하고 있던 지역을 160m 방격으로 동서 18개, 남북 18개의 지역으로 설정한 점이 특징이다. 그러한 뜻으로 <도면 4>등에 나타난 것처럼 《三國遺事》의 기록으로부터 찾은 복원도에서 坊을 형성했던 부분만을 뽑아내면 그들의 복원도와 거의 일치된다.

따라서 이번에 제시한 복원안은 東潮·田中俊明 복원안의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해소한 것으로, 한편으로 왕경과 六部の 관계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종전의 학설을 발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4. 閔德植(1990) 復元案

학설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東魏尺을 기초로 해서 坊 남북을 동위적으로 400척(140m) 40坊, 동서를 동위적으로 470척(164.5m) 34坊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三國遺事》에 있는 1360坊을 복원했다고 해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필자는 《三國遺事》의 坊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회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견해의 복원안으로서의 중요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5. 金漢培(1998) 復元案

都市景觀史의 입장에서 왕경 중심을 月城 北門 부근으로 보고, 尹武炳 안보다 4구획, 즉 640m 정도 남쪽으로 이동시킨 복원도를 제시하였으나, 南山 지역이 너무나 크게 왕경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도시경관사에서의 접근은 평가할 만하다.

6. 東潮(1999) 修正案

중전의 東潮·田中俊明 복원안(東潮·田中俊明 1988)을 기반으로 해서 동서에 160m 구획을 한 줄씩 덧붙인 것으로 큰 변경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 많이 언급할 필요는 없으나, 이 복원안과 함께 東魏尺이나, 그 연장선상에 있는 大尺을 기반으로 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점은 문제이다.

즉, 160m의 구획을 450척으로 하여 그 한 척을 35.6cm, 즉 大尺으로 보아 마치 신라 왕경이 大尺으로 설계된 듯한 표현이 많이 보인다. 그러한 논의를 진전시키려고 하면 《三國史記》의 기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大尺에는 5尺1步制와 6尺1步制의 두 가지 해석이 있어 혼란하고 있는데, 5尺1步制를 채택할 경우에는 《三國史記》의 三千七十五步는 5.47km, 6尺1步制를 채택하면 6.56km이다. 이 수치는 수정안에서 제시한 20구획 3.2km와 전혀 맞지 않는다. 가령 반대로 복원안의 길이를 타당한 것으로 보고 《三國史記》의 1步를 찾았다 하더라도 한 척은 17.3cm가 되어 버려 이것도 논의할 가치가 없다. 척도에 기초를 둔 논의를 진전시키려고 하면 이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IX. 맺 음 말

이번의 복원작업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라는 문헌사료를 되도록 개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서 합리적인 해석을 부여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문헌 해석만으로 <도면 3>, <도면 4>, <도면 5>에 나타난 것과 같은 균형이 좋은 복원도를 작성할 수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균형이 좋은 복원도를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 내포된 왕경 개념도를 완전히 복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 이 복원결과를 중전의 연구성과와 대비함으로써 《三國史記》에 기재된 步의 길이를 1.60m, 즉 한 척을 26.7cm로 구할 수 있었다. 이 길이는 고한척과 완전히 일치된다. 중전의 연구에서는 완전히 무시되었던 왕경 길이·폭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을 주고 게다가 그 결과가 고한척과 완전히 일치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었으므로 복원안이 타당함을 이중으로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유적 등에 대한 분석으로 찾아진 고한척이 문헌사료에 의해 뒷받침된 것은 尺度史 연구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본고는 복원도를 실제 지도상에 나타내는데 있어서는 예시적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이번의 복원도가 중전 학설들의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해소한 것이고 실제 지도상에 투영하는데 있어서는 중전의 학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가 가지는 논리를 더욱 활용함으로써 위치 결정과 관련된 연구도 진전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 본 복원이 지리적인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六部에 대한 논의의 발전이나 《三國史記》, 《三國遺事》 연구 자체에도 향후 여러 가지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參考文獻>

- 金昌鎬 1995, 「古新羅 都城制 문제」,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講文集』 15 · 16.
- 金泰中 1992, 「慶州邑城」, 『慶州史學』 11, 慶州史學會.
- 金漢培 1998, 『우리 都市의 얼굴찾기 - 한국 도시의 경관 변천과 정체성 연구』.
- 閔德植 1990, 『신라왕경의 도시계획에 관한 시고』 36, 고려대학교 사학회.
- 朴方龍 1996, 「新羅 都城의 宮闕配置와 古道」, 『考古歷史學志』 11 · 12, 東亞大學校博物館.
- 朴泰祐 1987, 「統一新羅時代의 地方都市에 對한 研究」, 『百濟研究』 18,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尹武炳 1987, 「新羅王京의 坊制」, 『李丙燾博士九旬記念韓國史學論叢』.
- 張順鏞 1976, 『新羅王京의 都市計劃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東潮 1999, 「新羅金京의 坊里制」, 『條里制 · 古代都市研究』 15.
- 東潮 · 田中俊明 1988, 『韓國의 古代遺跡(卷1 新羅編)』, 中央公論社.
- 藤島亥治郎 1930, 「朝鮮建築史論其1 · 其2」, 『建築雜誌』 44.
- 木村誠 1984, 「三國期新羅의 王畿와 六部」, 『人文學報』 167.
- 武田幸男 1991, 「新羅六部とその展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8.
- 小澤毅 1997, 「古代都市『藤原京』の成立」, 『考古學研究』 175.
- 新井宏 1990~1992a, 「古代尺度復元法の研究(第1報)~(第3報)」, 『計量史研究』 13~15.
- _____ 1992b, 『まぼろしの古代尺 - 高麗尺はなかった -』, 吉川弘文館.
- 田中俊明 1992, 「新羅における王京の成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0.
- 丘光明 · 邱隆 · 楊平 2001, 『中國科學技術史 度量衡卷』.

Restoration of Silla capital and "Kohan" Scale(An Old Korean Scale) Considering articles in "Samguksagi" and "Samgukyusa"

Arai, Hiroshi

Many restoration models on the grid planning of the old Silla capital have been reported already. However all of these restorations still remain in fragmentary consideration for observation of old maps, archaeological information or old documents and are lacking in general consideration including metrological view - points. For example, though Samguk - Sagi says the length is 3075 bo, the width is 3018 bo and 35 ri and 6 bu in it, it has not been clear yet that why the detailed expressions such as 3075 bo, 3018 bo is used, or how long the actual bo length is, or where 35 ri or 6 bu are located in. The situation for the Samguk - isa's mention 1360(360) bang 55 ri is not quite different. Though many researchers restored the grid planning, nobody has paid attention to comparison between the restored size of the city and the Samguk - sagi's item 3075 bo, 3018 bo.

This author,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tried to restore the grid planning by analyzing the Samguk - sagi and Samguk - isa articles faithfully.

As a result, only from analyzing these texts, we could get the restored grid planning that 1 bang is square 100 bo, 9 bang (square 300 bo) is 1 ri and 100 ri (square 10 ri) is the total capital area.

In this restoration model, the bang part (the residence area) agrees well with the Yun Mubyong's restoration model or the Azuma Ushio and Tanaka Toshiaki's restoration model, that is. the new model covers some of the conventional restoration models.

Incidentally one block length of the actual grid in the old Silla capital is now given as 160m by recent archaeological researches. Therefore 1 bo shown in Samguk - sagi is calculated to be 1.60m and 1 foot is to be 26.7cm. This length agrees very well with Kohan scale(old Korean scale) which was introduced inductively by computer analysis for many ruins.